

큐라클·인제니아, ‘혈관 신약’으로 글로벌 자금 끌어모은다

큐라클, 메멘티 메디슨과 ‘맞손’
‘MT-103’ 개발·상업화에 1.5조

인제니아, 오는 8월 상장 앞뒤
‘IGT-303’ 등에 필요 자원 마련
이중기능 플랫폼 ‘엘시덱’ 구축

난치성 혈관질환 특화 기업 큐라클이 최근 글로벌 의약품 시장에서 망막질환 치료제 후보물질들을 기술수출하면서 국내 바이오텍의 플랫폼 경쟁력을 높인 가운데, 후발 주자인 인제니아테라퓨틱스가 기업공개에 도전하며 경쟁에 합류한다.

19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큐라클은 대규모 성과를 올렸다. 미국 바이오텍 메멘토 메디슨과 ‘MT-103’ 개발 및 상업화를 위한 계약을 최대 1조5636억원 수준으로 체결하면서다.

MT-103은 Tie2 활성화 항체와 VEGF 항체를 결합한 이중 항체다. 혈관 안정화 수용체인 Tie2를 활성화해 혈관을 강화하는 한편, 혈관내피성장인자(VEGF)를 억



인제니아테라퓨틱스 연구원이 연구개발하고 있는 모습.

/인제니아테라퓨틱스

제해 비정상적인 신생혈관 생성을 막는다. 당뇨병성 황반부종, 습성 황반변성, 당뇨 망막병증 등을 치료하는 데 쓰인다.

글로벌 자본이 이러한 차별화 기전에 지갑을 열고 있는 상황에서 인제니아테라퓨틱스 역시 글로벌 빅파마를 통해 기술

력을 입증한 파이프라인을 무기로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다는 전략이다.

인제니아테라퓨틱스는 오는 8월 상장을 앞두고 있다. 상장 공모 주식수는 총 500만 주다. 공모 희망가 범위는 1만2000원~1만4500원으로 공모 예정 금액은 약

600억원 수준이다.

해당 재원으로 오는 2028년까지 3개년 연구개발 전략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신장 질환 치료제 ‘IGT-303’의 국내 임상2a상 개시, 삼중항체 항암제 ‘IGT-532’의 독성시험 및 화학·제조·품질관리(CMC) 비용에 주로 집행될 예정이다.

인제니아테라퓨틱스는 독보적인 연구 개발 역량을 지속 쌓아왔다. 지난 2022년에는 글로벌 바이오텍 아이바이오에 IGT-427을 기술이전하기도 했다. 이후 2024년 7월 미국 빅파마 머크가 아이바이오를 완전 인수합병하면서 IGT-427은 머크의 안과 부문 핵심 자산이 됐다.

IGT-427은 망막 질환을 위한 이중 항체다. 지난해 10월 임상 1/2a상에서 우수한 시력 개선 및 안전성 데이터를 기록해 올해 글로벌 임상 3상에 진입했다.

이와 함께 인제니아테라퓨틱스는 ‘플랫폼 확장성’으로 기업 가치를 강화하고 있다. 안과 질환은 물론, 만성 신장 질환 등을 폭넓게 공략한다는 복안이다. 인제니아는

혈관내피세포종을 정상화하는 동시에 혈액 내 질병 단백질을 빠르게 제거해 세포 내로 분해하는 기술을 개발해 이중 기능 플랫폼 ‘LCIDEC(엘씨덱)’을 구축했다.

인제니아 측은 “각 파이프라인 개발에 선제적으로 집중하겠다”며 “파이프라인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면서도 초기 단계에서 효력 검증(PoC) 및 적응증 확대 연구를 통해 기술 수출을 위한 데이터를 확보해 기업의 중장기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신약개발 스타트업 관계자는 “병리적 근본 원인에 접근하는 기전(Mechanism of Action)이 중요하다”며 “세포 및 분자 단위로 세분화하여 분석함으로써 구조적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한 기전을 규명할 수 있는 플랫폼은 체내 미세환경을 개선하는 등 무궁무진하게 확장 가능한 바이오 패러다임으로 주목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GC녹십자, ‘알리글로’ 중심 5300억 투자

2033년까지 오창공장에 투입
알리글로 美 시장 안착 공략
‘GC5136B’ 상업화에 1400억

GC녹십자가 미국에 진출해 기업의 글로벌 성장을 이끌고 있는 국산 혈액제제 ‘알리글로’를 중심으로 중장기 사업 전략에 시동을 건다. 대형 투자를 단행해 차세대 성장동력인 알리글로 ‘피하주사(SC)’ 제형을 생산하기 위한 전용 시설을 구축하고 수익성 개선까지 이뤄내겠다는 구상이다.

19일 국내 제약 업계에 따르면, GC녹십자는 ‘알리글로’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올해부터 오는 2033년까지 충북 청주에 위치한 오창공장에 총 5300억원을 투자하는 가운데, 이 중 약 26%에 달하는 1400억원을 알리글로 후속 파이프라인 ‘GC5136B’ 상업화에 대응한 설비 구축에 집중 투입한다. 앞서 미국 의약품 시장에서 나타난 알리글로 성장세를 지속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알리글로

/GC녹십자

알리글로는 2024년 7월부터 미국에서 발매되고 있는 정맥투여(IV) 제형 면역글로불린 10% 제제다. 선천성 면역결핍증으로 불리는 일차 면역결핍증 등에 쓰인다.

출시 1년 만인 2025년 7월 누적 매출 1000억원을 기록했고 2025년 연간 매출은 전년 대비 211% 증가한 1511억원을 올렸다. 올해 들어 이러한 호실적에 탄력이 붙었다. 지난 1분기 알리글로 매출은 349억원으로 전년 동기 86억원에서 4배 커졌다. GC녹십자는 올해 연간 매출 목표를 전년 대비 40% 커진 약 2100억원으로 설정하는 등 오는 2028년 연간 매출 3억 달

러 돌파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알리글로의 미국 시장 안착과 함께 고부가가치 약물 ‘GC5136B’를 통해 해당 시장을 선점한다는 방침이다. ‘GC5136B’는 정맥투여(IV) 제형 면역글로불린 10% 제제를 피하주사(SC) 제형 면역글로불린 20% 제제로 개선한 물질이다. 환자가 스스로 투여 가능해 복용 편의성 등을 높일 수 있다.

또 현재 미국 시장에 출시된 피하주사형 고농도 제제는 단 3종에 불과해 희소성까지 갖췄다는 분석이다.

‘GC5136B’는 비임상 단계에 있으며 오는 2027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임상 3상시험계획서(IND)를 신청할 계획이다.

GC녹십자는 독자 생산 기술과 최적화 공정을 개발한 것은 물론, 오창공장 내 전용 설비를 통해 생산성 제고, 원가 절감 등까지 극대화한다는 복안이다. 해당 파이프라인 상용화 단계 진입 시 미국 면역글로불린 시장에서 ‘두 자릿수 점유율’을 달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청하 기자

동아제약, 초등학교 구강관리 교육 강화

‘가그린 좋은 이’ 캠페인 규모 2배 확대

동아제약이 어린이 구강관리 교육을 강화한다. 구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아동기 습관을 올바르게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동아제약은 지난 13일부터 서울 지역 아동센터와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교실에서 ‘가그린 좋은 이’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오는 11월까지 지역아동센터 25곳과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교실 7곳에서 초등학교 1~4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순차 진행한다.

올해는 캠페인 규모가 2배 커졌다. 지난해 서울 지역아동센터 26곳에서 어린이 341명이 함께했고 올해는 어린이 685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확대됐다. 교육 전·후 치아세균막 검사를 새롭게 도입해 양치 습관 형성에 따른 치아 표면에 남아 있는 세균막(플라그)의 변화를 확인한다. 또 대한구강보건협회 전문가가 충치 발생



동아제약이 국내 초등학교들과 ‘가그린 좋은 이’ 캠페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동아제약

원인, 예방법, 올바른 칫솔질 방법, 칫솔 보관법 등을 어린이 눈높이에 맞게 설명하는 교육이 이뤄진다.

동아제약관계자는 “어린이들이 올바른 칫솔질 방법을 따라하며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현장과 실습 중심의 체계적인 구강 교육이 중요한 만큼 더 많은 어린이들이 올바른 구강 관리 습관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계속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JW중외제약, ‘혈액종양내과’ 연구성과 공유

통합 학술행사 ‘판타지 심포지엄’

JW중외제약이 제품별 치료 전략으로 다양한 진료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JW중외제약은 지난 11~12일 서울 강남에 위치한 오크우드프리미어코엑스센터에서 통합 학술행사 ‘판타지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행사는 혈액종양내과 의료진을 대상으로 열렸으며 JW중외제약의 면역성 혈소판 감소증 치료제 ‘타발리스’, 면역질환 치료제 ‘악탐라’, 고용량 철분주사제 ‘페린젝트’ 등에 대한 최신 연구 성과를 다뤘다.

우선 타발리스에 대해서는 국립암센터 정종현 교수가 강연했다. 정 교수는 자가 항체에 의한 혈소판 파괴를 근본적으로 억제하는 타발리스 작용 기전과 글로벌

및 일본 임상3상 내용을 설명했다.

정 교수는 “타발리스는 혈전 형성 위험도를 높이지 않아 자가 면역 질환을 앓거나 혈전 고위험군인 환자들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선택지가 될 수 있음을 집중 조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북대학교병원 권지현 교수는 스페인, 미국, 이탈리아, 프랑스 등 다국적 처방 환경에서 일관되게 입증된 타발리스 유효성과 안전성을 공유했다.

또 국내 진료 환경에서는 ‘장기 무치료’에 처방으로 활용 가능성을 높였다. 다약제 치료에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면역성 혈소판 감소증 환자가 타발리스 단독 투여 후 치료를 중단한 후에도 혈소판 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된 사례다.

이와 함께 악탐라와 페린젝트를 주제로

한 발표도 이어졌다.

경희의료원 이현정 교수는 CAR-T 및 이중항체 치료 시 발생하는 면역항암제 부작용인 ‘사이토카인 방출증후군(CRS)’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과 ‘악탐라’를 소개했다. 이 교수는 “인터루킨-6(IL-6) 신호 경로를 차단하는 악탐라를 통해 항암제의 항종양 효과를 떨어뜨리지 않으면서도 CRS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삼성서울병원 최대호 교수는 암 환자의 기능성 철결핍을 개선하기 위한 정맥 철분 치료 옵션으로 페린젝트를 제시했다. 최 교수는 “국내 임상3상에서 페린젝트 1000mg 단회 투여만으로도 빈혈 교정 효과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내외 의료진과 학술적으로 지속 소통하며 실질적인 의학학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광동제약, ‘광동 V라인 옥수수수염차’ 재단장

‘V라인’ 상징 역동적으로 그려내

광동제약이 ‘광동 V라인 옥수수수염차’ (사진)브랜드 가치를 높이며 국내 대표 차음료 시장에서 입지를 공고히 한다.

광동제약은 광동 V라인 옥수수수염차를 재단장한다고 19일 밝혔다.

브랜드를 상징하는 ‘V라인’을 역동적으로 그려 넣었으며 ‘가벼운 하루를 만드는 V-루틴’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옥수수 이미지도 보다 산뜻하게 적용해 원료 특징을 살렸다. 일상 속 건강 관리에 중점을 둔 브랜드 정체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실제로 광동 V라인 옥수수수염차는 옥수수수염 특유의 구수한 맛을 갖췄고 천연적으로 카페인을 함유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2006년 출시부터 2025년까지



누적판매량 16억 1258만병을 기록했다.

아울러 광동제약은 이번 재단장으로 페트(PET) 제품에

도 변화를 적용했다. 제품 하단에서 옥수수수염 등 차 원재료의 형태와 질감을 시각적으로 구현했고 3D 입체 디자인을 설계해 안정감까지 더했다.

친환경 접착식 라벨, 하프라벨 등으로 환경 부담도 낮췄다. 또 500mL 기준 용기 중량을 기존 대비 약 6.8% 줄여 플라스틱 사용도 줄였다. 해당 용기는 옥수수수염차를 비롯해 핫차, 밀식보리차, 돼지감자차 등 차음료 제품군에 순차 적용될 예정이다.

/이청하 기자